

# 2024년 8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주)지에스리테일

## 1. 회의개최

연번	일시	장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국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24.8.9	강서N타워	9/10	1	6	16	○		

### o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 심재웅, 서인주, 정사강, 이현규, 신영수  
최정혜, 한명삼, 김미경, 서현선

###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대표(사장), 제작 및 편성부서 국실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  
허남준(사업지원부문장)
- 경영진 외 : 신석한(심의팀장), 오주연(부장), 남효주(매니저)  
채호석(방송사업지원팀장), 오세영(부장), 배소희(매니저)

##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	-	-	11	11	-	11

나. 사업자 반영

구 분	수 용	의견 참고	반 론	합계
건 수	11	-	-	11

\* 시청자위원 제시의견 수용비율 기준으로 평가(활용비율 0%는 0점)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방심위 조치사항	<p><b>1. 방심위 이슈 사항 : 가전제품 시연 관련 오인 여부</b></p> <p><b>심재응</b> 오늘 안건은 요즘 여름철 계절가전에 대해 판매 및 방송을 많이 하고 있음. 타사 방송에서 문제 제기된 건은 아니지만 혹시나 제어를 해야 하는 건은 아닌지 의견이 궁금하여 채택했다고 하심.</p> <p><b>오세영</b> 요즘 세탁기, 건조기, 선풍기, 배터리 폭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사용 설명서에 분명하게 공기 배출구나 흡입구가 빨래, 커튼 등으로 막히면 기기 내부 온도가 상승하고, 고장 및 폭발 사고의 원인이 된다는 기사도 많이 나옴. 방송에서는 손수건을 적셔서 제습기 위에 올려놓고 얼마나 빨리 마르는지 보여줌. 성능에 대해 가장 간략하고 빠르게 보여주기 위한 시연임. 그러나 주의사항과 완전히 반대되는 시연 방법임.</p> <p><b>이현규</b> 안전 사용 경고에 완전히 반하는 사용 방법에 해당하는 걸로 보임. 충분히 시청자 오인 사항으로 보여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보임.</p> <p><b>최정혜</b> 소비자들이 사용설명서나 주의사항을 특별하게 숙지하지 않음. 홈쇼핑에서 보고 듣는 사용법을 기억할 것 같음. 이런 측면에서는 안전하지 못한 사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니 최대한 피하는 게 좋아 보임.</p> <p><b>심재응</b> 이러한 경고 관련 메시지가 실제 방송</p>	<p>뉴스 등 기사자료에 따르면, 에어컨 실외기, 세탁기/건조기, 제습기 등 잘못된 관리로 인해 폭발하는 사고도 늘고 있어, 당사 또한 잘못된 시연으로 시청자 오인이 발생할지 점검 차원에서 사용 시연에 대해 논의한 결과,</p> <p>- 시청자들은 설명서 및 주의사항을 숙지한다기 보단, 시연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기억하기 때문에, 가급적 해당 시연을 금하거나 주의사항 안내를 보다 명확하게 하여 시청자 오인이 없도록 할 것</p> <p>위 의견으로 제작진 및 심의팀에 전달하였고, 추후 계속 모니터링하여 차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선 재 보고 후 개선하도록 하겠음</p> <p>계속 모니터링하고 개선하여 시청자 불편함 없도록 주의하겠음.</p> <p>[24. 8 조치완료]</p>	7월

에서 나오나?

**오주연**

앞부분에 방송 자막 등 짧게 고지가 나가긴 함.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 없기에 자세한 것은 설명서를 참조해달라고 문구가 나감.

**서인주**

최정혜 교수님이랑 의견이 비슷함. 소비자들은 설명서를 잘 보지 않음. 단순 시연이었다고 말하더라도 시연에 앞서 설명을 못 듣고 봤기 때문에 굉장히 오인의 소지가 많을 것 같다고 느낌. 이런 경고 문구와 같은 주의를 시연 당시에 강조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음. 해당 시연 방법은 마치 샘플처럼 작용해 소비자들에게 이렇게 하라는 듯이 보여질 수 있어 오인의 소지가 분명히 있음. 단순히 자막 말고 '이건 그저 보여드리는 것이고, 오랜 시간 배출구가 막히게 해서는 안 된다.' 라든지 반드시 말로 설명이 필요해보임.

**정사강**

앞선 의견들과 비슷함. 사람들이 충분히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임. 여름에 빨래가 특히 잘 안 마르는 상황에서 더 빨리 말려야 한다면 헤어 드라이기를 사용한다든지 선풍기 앞에 넣어놓든지 함. 시연에서 이런 식으로 잘 마른다는 걸 보여주면 누군가는 분명히 급할 때 그렇게 말리려고 할 것 같음.

드라마나 영상물, 특히 예능에서 하단에 굉장히 강조해서 표시하는 경우가 있음. '절대 따라 해서는 안 된다.', '올바른 사용방법이 아닙니다.' 등 확실하게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걸 고지할 필요성이 있음.

**김미경**

소방청에서 화재때문에 이런 부분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고지하고 있고, 요즘에도 많이 사용하는 손수건을 사용해 시연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오인할 것 같음. 그 전에도 안 했던 사람들도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음. 국가부처나 소방서에서 위험하다는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어 시연 자체를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음.

**마경태**

시연이 순식간에 건조가 이뤄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라하고 싶어 할 만큼

너무 자극적임. 효과가 보다 떨어지더라도 밀폐공간에서 시간을 배속으로 해서 얼마만큼 빨리 마르는지 보여주는 등 다른 시연 방법도 있을 것 같음.

다른 시연은 방송에서 적용된 사례는 없나?

#### **오주연**

예시 말고도 챔버에 습기를 가득 채우고 제습이 얼마나 빨리 되는지 보여주는 시연도 존재함. 짧은 시간 내에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손수건 건조 시연과 챔버 시연을 자주 보여드리고 있음.

#### **서현선**

다른 분들 의견과 비슷함. 문구가 존재해야하지 않나... 한 편으로 지금과 같은 시연을 한다면 실제 사용에서는 '제습기로부터 몇 센티 떨어져서 말려야 한다.' 이런 멘트나 가이드가 있었으면 좋겠음. 실제로 제습기 안에 물이 떨어지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침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음. 저만해도 양말 널어두면 금방 마르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따라하고 싶어졌음. 그렇기에 더 안전거리라도 유지하라는 지침이 같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함.

#### **신영수**

다른 의원님들 의견과 비슷함. 빨래 건조가 더 빠르게 되라고 근처에 제습기를 트는 경우도 있기에 방송을 보기 전에는 괜찮지 않나 생각했음. 그러나 제습기 위에 손수건을 걸어두는 걸 보니 제품의 특징, 장점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주의사항을 어기며 선을 넘어선 느낌이 들었음. 다른 의견과 비슷하게 주의사항은 어기지 않았으면 하는 느낌임.

또 자료 위의 경고 문구를 보니 감전, 화재 등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이고, 밑에는 고장에 대한 경고가 눈에 띄며 내용도 서로 달라 보임. 위의 문구는 물방울이 떨어지는 문제로 인해 보다 엄중하게 경고하는 상황인 것 같음. 이러한 정보도 시연에 들어갔으면 좋겠음. 만약 물방울이 기기로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송출되는데 자막으로 '빨래를 널어두면 자칫 고장 날 수 있다.' 표시하는 등 상호 모순적인 내용이 동시에 나온다면 내용상의 상충 문제도 있어 보임.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을 때, 방어적으로 접근해 다른 의원님들과 의견이 비슷함.

**한명삼**

시연을 보면 제습기가 거의 건조기 마냥 성능이 좋다고 인식 됨. 이러한 시연이 학습이 돼서 상황에 따라, 필요에 따라 언젠가 이렇게 사용해봐야겠다고 생각이 될 정도임. 마케팅적으로 상품이 참 좋다고 생각되는 시연 방법이지만, 안전 부분에서 언밸런스하기 때문에 안전사고에서 좋은 방송용 샘플이 될 수 있을 것 같음. '이런 방송처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라고 한다면 너무나 좋은 샘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연 방법을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심재웅**

다들 비슷한 의견인 것 같음. 방송에서 자막으로 '해당 장면은 이해를 돕기 위한 시연이며 환경 등에 따라 효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고 나옴. 이 자막을 보면 저희가 우려하는 오인의 여부라기 보다는 성능이 방송만큼 잘 안될 수도 있다는 일종의 경우의 수를 방지하기 위해 보여주는 것 같음. 상품 소개 및 판매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35조에 따르면 시연을 할 때는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환경, 조건 등이 현저히 다른 상태에서 실연해서 시청자를 오인하게 해선 안 된다고 되어 있음. 즉, 방송 시연 장소, 상황과 시청자의 집안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그 문구는 그걸 방지하기 위함인 것이지 실제 우리가 염려하는 화재와 같은 안전사고의 관점에서의 자막은 아니라고 생각됨. 그런 위험한 상황에 대한 자막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음.

쇼핑 호스트가 제품 제습의 성능이란 말을 사용함. 이도 중요하지만 소음의 크기, 18리터가 제습기를 구매할 때 얼마만큼의 의미를 갖는지 이런 추가적으로 소비자들이 궁금할 수 있는 요소가 더 들어가는 내용으로 꾸며져야 할 것 같음.

또 제습기를 시연과 같이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함. 보통 빨래를 널어놓고 그 옆에 틀어놓지 그 위에 물건을 올려놓는 것은 정말 급한 상황 아니면 그러지 않을 것 같음. 일반적인 제습기의 용도를 찾아보니 제습기 위에 물이 떨어지는 것이 감전, 화재 사고 발생에 가장 위험하다고 나와 있음. 제습기를 보면 건조 기능이 들어있음. 거리를 둔다면 신발 물기도 빨아들인다

는 문구도 있긴 함. 이런 제습의 기능도 있기에 건조에 대한 성능도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어 오인의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음. 성능의 차원이라면 조그만 탈수기를 옆에 놓아 탈수가 끝난 빨랫감으로 제습기 위에 올려놓는 시연을 하는 것은 어떤지 묻고 싶음. 아님 빨래를 너는 간이 건조대 같은 걸 갖다놓고 쇼핑 호스트가 보여줘도 소비자들이 효과가 좋다고 생각할 것 같음.

**오세영**

앞서 말씀드린 챔버 시연 외에도 여러 시연이 있음. 방송 시작할 때 무언가를 설치해 방송이 종료될 때, 이를 비교해 제습 효과를 보여주는 등... 그러나 모든 시청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방송을 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빠른 시간 내에 효과가 나타나는 시연을 보여준 것임. 앞서 말씀하신 강력한 문구라든가 다양한 시연 방법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음.

**이현규**

방송의 시연 장면은 빨래를 공기 배출구에 건조를 하는 장면으로, 제품의 안전 사용 경고에 반하는 사용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충분히 시청자의 오인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 보임.

**최정혜**

제습기 공기배출구 위에 손수건을 놓고 시연하는 부분처럼 시청자의 오인을 야기시킬 수 있는 가전제품 시연에 대한 안건으로 이해됨.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사용설명서를 읽고 주의사항을 숙지하기보다는, 홈쇼핑에서 듣게 된 설명과 사용법을 기억할 것 같음. 그런 측면에서 주의사항에 정확히 반하는 시연으로 인하여, 제품 구매 이후 안전하지 못한 사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글보다는 영상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안전한 사용법에 반하는 시연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고 생각함.

총 건수

11건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 내용	조치 내용	조치일자	비고
-	-	-	-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24.1 ~ 2024.12)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윤경희	751216	現 중앙일보 이노베이션랩 부장	-	1년
김호중	670707	現 시민 옴부즈맨 대표	-	1년
서아론	840430	現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부장	-	1년

3.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평가기준	해당여부
시청자불만, 시청자평가원 의견, 방심위 조치 등 활용 여부 ※ 활용 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실적표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 필수	○
토의안건 사전공지 및 상시적 의견 개선 창구 운영 (사전 검토를 위한 위원 게시판, 단체 채팅방 운영 등)	○

4.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GS리테일 홈페이지	시청자위원회 월간운영실적	인터넷

## 나. 시청자위원 명단

(임기 : '23. 09~ '25.09.)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문	비고
위원장	심재웅	•現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前 한국방송학회 총무이사	한국방송학회	언론관련 시민학술	
부위원장	서인주	•現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前 한국소비자업무협회 회장	한국소비자학회	소비자보호단체	
위원	정사강	•現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 연구위원 •前 한국언론학회 총무이사	한국언론학회	언론관련 시민학술	
위원	김미경	•現 한국부인회총본부 사무총장 •現 대한화장품협회 광고심의위원	한국부인회총본부	소비자보호단체	
위원	이현규	•現 법무법인 김&장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단체	
위원	마경태	•現 법무법인 김&장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단체	
위원	최정혜	•現 연세대 경영학부 교수 •現 한국유통학회 이사	한국유통학회	유통단체	
위원	신영수	•現 경북대 법과대학 교수 •現 한국유통법학회 이사	한국유통법학회	유통단체	
위원	한명삼	•現 기아대책 행복한나눔 본부장 •現 사단법인 로템복지회 감사	기아대책 행복한나눔	사회소외계층	
위원	서현선	•現 한양대 사회혁신융합전공 겸임교수 •現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이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학부모단체	
변 동 사 항					

##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방 심 위 조치사항	<p><b>1. 방심위 이슈 사항 : 출연자의 품위 유지 위반 관련</b></p> <p><b>심재웅</b> 지난 회의 안건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기 시연과 관련하여 시청자들이 설명서 및 주의 사항보다는 시연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가장 많이 기억하기에 가급적 문제가 될 시연을 하지 않거나 주의 사항을 더욱 명확하게 전달하면 좋겠다고 의견 주심. 이번 회의 안건은 문신과 관련한 것임.</p> <p><b>오세영</b> 이전에도 비슷한 민원이 있었음. 기본적으로 문신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음. 단지 시청자 윤리적 감정 및 미성년자 모방 우려를 고려해서 내부적으로 검열하는 것임. 지상파에서는 테이핑하고 나오지만, 당사에서는 그 정도로 제재하지 않음. 다만, 이번에 '중학생 아들이 연예인 문신을 보고 해달라고 조른다.' 라는 민원이 명확하게 들어와서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안건으로 상정함.</p> <p><b>심재웅</b> 복장에 대한 지적이 이전에도 있었음. 과하게 찢어진 청바지 때문에 시청자 민원이 들어왔었음. 시청자위원회 안건으로도 올렸으며, 복장 권리를 해칠 위험이 있어서 규정까지 만들기에는 과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음.</p> <p><b>오세영</b> 복장에 대해 '어떻게 입어 달라'까지는 하지 않지만 '단정하게 입어 달라' 정도의 안내는 계속하고 있음. 이번에는 내부적으로 복장 가이드를 만들고자 함. 출연자 업무 지침 형식으로 위원회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하고자 함.</p> <p><b>오주연</b> 여러 번 방송한 상품이며, 해당 연예</p>	<p>출연자의 문신에 대한 민원이 접수었고, 이와 같은 출연자의 문신(타투)에 대한 직접적인 법 및 심의규정은 없으나,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 및 미성년자의 모방 우려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검열중인 상황임.</p> <p>영상에 나오는 출연자의 문신 노출 사례에 대해 확인하고, 시청자 입장에서의 의견 및 출연자 주의사항 등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안건으로 제시함.</p> <p>해당 안건에 대해 위원들의 의견을 구하고 적극 수용하여 개선 방안 마련하도록 하겠음.</p>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p>인이 이전에는 라운드 티셔츠를 입고 출현했으나, 민원이 들어온 방송에서는 노출이 있는 셔츠를 착용한 것임.</p> <p>상대적으로 다른 지적 사항은 없었으나, 새우를 먹다가 허리를 숙이면서 문신이 보이고 상품과 함께 클로즈업되는 정도였음. 테이핑을 하라고 지시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인 것 같음.</p> <p><b>김미경</b> 민원은 1건만 들어왔나?</p> <p><b>오주연</b> 1건임. 요즘 연예인들이 문신을 많이 하는 편이고, 다른 패션 흐름 방송에 출연하는 연예인도 팔에 한 문신이 잠깐씩 카메라에 잡힐 때가 있었으나 민원이 한 건도 없었음. 이에 내부적으로 시청자들에게 이 정도는 불편한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방송하였던 건임.</p> <p><b>마경태</b> 요즘 추세를 보면 문신이 강조하여 표시됐다는 사실만으로도 혐오감, 불쾌감을 유발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임. 따라서 문신의 크기나 비율, 내용 등을 고려해서 제한할 필요는 있어 보임. 예를 들어 신체 부위 중 문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70~80% 이상이 되는 이런 경우는 테이핑하든지 등의 기준을 정하는 게 바람직해 보임.</p> <p><b>심재웅</b> 위원분들 자유롭게 의견 부탁드립니다.</p> <p><b>서인주</b> 개인적으로 저 정도는 이상한 내용도 아니고 잘 보이지도 않는데 괜찮지 않나 싶음. 부위나 비중 등이 잘 보이는 곳에 있는 과한 문신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걸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음.</p> <p><b>서현선</b> 더 자세한 가이드가 있는 데 의미가 있나 싶음. 이러한 옷을 입고 오면 이러한 문제 및 민원이 있었다. 정도의 피드백을 드리는 정도라면 자체적으로 교정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됨. 요즘 선택에 따라 드러냈다 안 드러냈다고 하는 것임.</p>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p><b>정사강</b> 문제가 되는가 찾아보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11년도 기사 중에 권고 조치 같은 게 있었음. 래퍼들은 대부분 문신을 하고 나오는 거여서 당시에 민원이 좀 들어왔었음. 그러나 18년 정도 들어서면서 제재하는 것보다는 자율에 맡기자고 얘기가 나옴. 그것도 5~6년 전임. 이레즈미 같은 조폭 문신을 청소년들도 많이 하는 걸 봤고 이런 것만 아니면 될 것 같음. 일상적으로 보고 따라 하려면 이런 방송이 아니고도 인터넷을 통해 얼마든지 볼 수 있고 그걸 방송에서 어디까지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게 적절한 것인지 궁금함. 어떤 연예인이 문신을 새겼다면 무슨 의미로 문신을 했는지에 대해 기사로 내주는 경우도 봤음. 그것까지 하나 하나 방송에서 가능, 불가능 얘기를 하는 게 요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모호하긴 한 것 같음.</p> <p><b>서인주</b> 이러한 방송에 해당 민원이 들어온다면 모든 방송에 민원이 들어와야 할 것 같음. 많은 방송에서 문신이 나오니까... 우리 애가 한다면 반대할 것 같긴 한데 해보고 싶어 하는 마음은 이해가 감. 특히 연예인들은 많이들 하므로 그걸 규제하기에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어긋나는 느낌임.</p> <p><b>김미경</b> 홍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문신을 하고 있음. 개인적으로 보수적인 사람이지만, 문신이나 이런 건 열어놓고 생각해야 한다고 최근 생각 중임. 홈쇼핑을 보는 소비자의 경우, 쇼호스트도 그렇고 연예인도 그렇고 그분들에게 정보, 경험담을 듣고 싶어서 옆에 있는 것인데 정보 제공을 하는 데에 크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다면 본인을 보여주고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이제는 열어놓고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음. 다만, 해당 방송을 보수적으로 본다면 그냥 서 있으면 문신이 보이지 않지만, 숙였을 때 보이는 것에 있어서 굳이 오픈한 셔츠를 입고 나왔어야 했나... 게다가 문신이 없었어도 살이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야하다고 지적을 받았</p>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p>을 가능성도 있어 보임. 셔츠 단추 하나를 더 잠그지 않고 왜 문신이 보이게 했는지.... 규제보다는 지금처럼 자율에 맡기고 본인들이 스스로 조심해서 관리하게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음. 알려드리는 수준은 괜찮아 보임.</p> <p><b>신영수</b>  별로 문제를 못 느꼈음. 저런 세대는 아니지만 스포츠 UFC 방송도 보면 문신 안 한 사람이 없기에 아주 익숙한 느낌임. 흡소핑은 어떨지 모르지만, 기준이 많이 내려간 느낌임. 따라서 저렇게 단추 하나 더 잠갔으면 좋겠다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생각해 보면 그렇게 제재해도 되나 싶기도 함.  만약 업무 지침을 만들면 흡소핑사나 협력사, 연예인 본인 중 누가 통제하는 것인가?</p> <p><b>오주연</b>  본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되기 때문에 이러한 민원이 접수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 좀 더 가려주셨으면 좋겠다고 권고하는 수준일 것 같음.</p> <p><b>신영수</b>  굳이 과장해서 법적으로 해석하자면 공익적인 부분이 섞여 있는 부분이긴 함. 이런 청소년 이슈 등에 대해 협력사나 연예인을 통제하고 간섭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거 같음. 개인적으로는 전반적으로 괜찮아 보임.</p> <p><b>최정혜</b>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자료를 봤을 때, 중학생 아들이 문신하게 해달라고 했다는데 아무리 백번 양보해도 이 방송만 보고 문신을 하게 해달라고 조르지 않았을 것 같음. 무수히 많은 요청을 하는 와중에 해당 흡소핑 방송이 눈에 띄어서 저 연예인도 문신을 하고 흡소핑하지 않느냐 했을 것 같음. 문신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하기에는 너무 만연하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음.  다만, 상업적인 방면에서 놀랐음. 해당 연예인이 상품을 먹을 때 클로즈업이 되었음. 판매자 입장에서는 시선이 어디에 머무느냐는 엄청 중요한 사항임. 문신이 눈에 보이는 순간 시선이</p>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p>확 뺏기게 됨. 상품 구매 욕구가 생기다가도 싹 사라지게 됨. 그래서 매출이나 이러한 측면에서라도 한 번 재고를 해봐야 할 것 같음. 많은 사업자가 소비자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지 관심을 가짐. 시선이 떠나는 순간 매출에 타격을 받기 때문임. 회사의 매출 측면에서 해당 상품처럼 완판이 되는 게 아니라 재고가 남는 상품이라면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음.</p> <p><b>신영수</b> 문신 자체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문신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어려울지라도 상품 소개나 시식하는 순간에 클로즈업하여 문신이 도드라지게 보이는 건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함. 안 보이는 곳에 있는 문신은 어차피 봐도 인지를 못 할 터인데 클로즈업이 될 때 딱 보이는 것이 아쉬웠음.</p> <p><b>서현선</b> 그다음 참고 자료가 바지임. 연예인은 자기 노출, 표현을 많이 할수록 어텐션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해야 자신을 잘 보여줄 수 있을지 본능적으로 함. 규제적으로 맞출 수는 없다고 생각함. 연예인은 사람들의 호감도에 대해 굉장히 많이 고민하기 때문에 어떤 때에 네거티브가 나온 것인지 자세한 설명은 필요해 보임. 그래서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하는지 합의를 만들어 가며 연예인이 감을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음.</p> <p><b>한명삼</b> 방송 목적에 충실한 것임. 일반 음악 방송이나 드라마를 볼 때 철저하게 대사나 배경, 음악에 집중하도록 제작하지만, 배우 개인의 문신이 나오는 순간 몰입도가 떨어지고 그 방송을 보는 이유를 흐리게 만듦. 프로의식을 갖고 철저하게 마케팅 부분에서 방송에 충실했으면 좋겠음.</p> <p><b>심재웅</b> 요즘도 연예인들이 문신한 것을 보면 불쾌하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지만, 각오를 새로 다지는 의미로 문신을 새기는 등 긍정적으로 다루고 있음.</p>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p>해당 방송 하나만 보고 민원인의 아들이 조르지는 않았을 것이기에 '이것은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음. 가이드라인에 넓은 의미의 한 줄 정도로 과도한 불쾌감을 주는 의상이라든지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안 된다는 규정 정도로 뒤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듦.</p> <p>주로 나이가 많을수록 문신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한국 리서치 여론조사에 나와 있음. 전체적으로 'TV 방송 출연자들이 문신을 하고 나오는 것에 대해 규제해야 한다.'의 찬성 반대 비율이 거의 비슷함. 그중에서 충청도, 전라도 등의 지역에서 특히 반대가 많이 나왔고, 생각보다 여성들이 더 반대하였음. 연령대로 보면 50~60대이고, 직업별로는 전업 주부들이 70% 도 안됨. 성향은 좀 보수적인 사람들이 나왔음. 이런 걸 보면 홈쇼핑의 주요 고객층의 연령대가 점점 높아지는 걸 봤을 때, 문신이 나오면 구매 욕구가 방해될 수 있을 것 같음. 마케팅 차원에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넓게 가이드라인을 가져가되, 결국 제작을 할 때는 문제가 될 것 같다 싶으면 제작진들이 빨리빨리 판단해야 할 것 같음. 예를 들어 문신이 클로즈업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다른 곳으로 앵글을 잡는다든지 하는 판단이 좋을 것 같음.</p> <p><b>정사강</b>  유명 랩 경연 방송 등에 나가 본인을 보여주는 영상이 있음. 드라마나 영화에서 주인공들이 문신을 하고 나온다면 분석 대상으로 보는 것 같음. 아무 이유 없이 새기지 않고 뭔가 그 주인공의 특성을 표현하기 위해 문신이 동원되는 것임.  홈쇼핑에서는 굳이 클로즈업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음. 따라서 마케팅적인 거나 불필요한 부분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문신에 대한 진단이 아니라 제작진의 판단에 따라 제재하거나 해야 할 것 같음.</p> <p><b>서인주</b>  방송을 열심히 보는 사람들의 경우, 문신이 확 눈에 띄는 것 같음.</p> <p><b>심재웅</b></p>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p>자료 속 노란 텍스트 상자 안에 있는 문구는 실제 민원인가?</p> <p><b>오주연</b> 맞음.</p> <p><b>서현선</b> 적극적인 민원이 소수라지만 굉장히 의심과 불만이 적극적으로 표현되는 느낌임. 그런 건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음.</p> <p><b>김미경</b> 홈쇼핑을 보는 시청자 자체가 연령대가 높고 보수적인 성향을 보인다면 저런 민원을 일반적인 유튜브를 보는 소비자들보다는 많이 있을 거 같음.</p> <p><b>신영수</b> 해당 민원이 문신을 바라보는 시청자들의 표본으로써 상징성이 있으면 얘기하고 싶을 것 같음. 그러나 다른 사람은 문제를 안 느끼는 데 이례적인 반응일 수 있어 가늠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음. 대세의 반응인지 아닌지... 오버한 반응을 하면 오히려 다른 시청자들하고 괴리된 경계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됨. 더불어 해당 연예인이 호불호가 있는 연예인일 수 있음. 앞서 말한 패션 흐름 방송의 연예인과의 이미지 차이 때문일 수도.... 평소 안 좋아했는데 하나 걸려서 민원 넣은 걸 수도 있을 것 같음.</p> <p><b>서인주</b> 현재 업무 가이드는 있는가?</p> <p><b>오세영</b> 있음.</p> <p><b>심재웅</b> 과하지 않다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 같음. 패션이기에 관한 규제보다는 가이드를 작성한다면 넓게 넓게 내용을 담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함.</p>				